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(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)

[미국 금융]

- Bloomberg: 씨티, “이번 주 G-7 회의 이후에 달러 추가 약세” 전망
- WSJ: JP 모건 CEO, “투자자 생각보다 관세 고통 더 클 수 있어”
- Bloomberg: 모건 스탠리, “침체 리스크 줄어 은행 합병 증가” 예상
- JP 모건 보고서: 트럼프의 세제 개혁안 Update

[물류]

- Bloomberg: 5월 초 LA 항만 컨테이너 입항은 30% 감소

[무역 전쟁]

- Bloomberg: 일본 재무성 장관, “미 재무장관과 관세와 환율 논의 예정”
- YahooFinance: 무역 긴장으로 중국산 아이폰 대미 수출 14년 만에 최저

[주택]

- CNBC: 주택 모기지 금리가 7% 상회했다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

- WSJ: 홈디포, “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 없어”
- CNBC: D-Wave Quantum, 새로운 양자 컴퓨팅 시스템 출시
- TechCrunch: 애플, 오디오북 관련 Spotify 앱 업데이트 승인

[보고서]

- 신한은행 아메리카: 일일 금융 시장 정보

[미국 금융]

Bloomberg: Citi Sees Weaker Dollar After G-7 Meeting as US Softens Tariffs

씨티, “이번 주 G-7 회의 이후에 달러 추가 약세” 전망

- 씨티 그룹은 각국 리더들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환율 정책을 논의하는 가운데 이번 주 G-7 회의 이후에 달러가 추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.
- 씨티 그룹 환율 전략가들은 메모에서 미국 정부가 공격적으로 달러 약세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각국 정부가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과 협상 타격을 추진하는 가운데 달러가 결국 약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.
- 한국과 대만이 미국과 관세 협상 과정에서 환율 이슈를 논의한 후에 환율 정책은 오늘 화요일 시작되는 G-7 회의를 앞두고 주요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. 일본 재무상도 이번 주 미 재무장관과 회담을 이번주에 조율하고 있다.

Bloomberg 기사

WSJ: Jamie Dimon Says Tariffs Might Inflict More Economic Pain Than Investors Realize

JP 모건 CEO, “투자자 생각보다 관세 고통 더 클 수 있어”

- JP모건의 CEO인 Jamie Dimon은 어제 월요일 “관세 여파가 아직 미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”며 “기업들이 수입과 공급 관련 새로운 비용에 직면하게 되면 증시는 슬럼프를 겪게 될 것”이라고 경고했다.
- 그는 경기 침체의 리스크는 아직 저평가 되어 있는 상황이며 트럼프의 관세가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.
- 그는 미국이 모든 국가에 10% 관세를 매긴 마지막 때는 1971년이었던가며 투자자들이 상당히 안일한 입장을 보인다고 덧붙였다.

WSJ 기사

Bloomberg: Morgan Stanley Sees Bank M&A Picking Up as Recession Risks Fade

모건 스탠리, “침체 리스크 줄어 은행 합병 증가” 예상

- 미 경기 침체 리스크가 줄어들고 관련 규제가 계속 변화하는 상황에서 모건스탠리는 미국 은행 분야가 올해 하반기에 인수 합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.
- 은행의 인수 합병은 지난 2021년 이래 평상시보다 낮은 연간 1백에서 1백50건 정도가 거래되었다는 것. 평상시는 연간 2백 건에서 3백 건의 인수 합병 활동이 이루어졌었다.
- 그러나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에 이같은 인수 합병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.

Bloomberg 기사

JP 모건 보고서: Trump's One Big, Beautiful Bill Update

트럼프의 세제 개혁안 Update

- “one big, beautiful bill”이라고 불리는 트럼프의 세제 개혁안 법안이 하원의 세입 위원회를 통과하고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처음에 거부된 후 지난 일요일 다시 통과되었다. 메디케이드 지출 관련 이견을 보여 예산위원회에서 잠시 멈춰섰던 것.
- 이 법안을 주도한 공화당은 이번 주에 표결에 들어가고 통과될 경우 상원으로 보내지는데 법안 내용상 추가적인 변경이 예상된다.
- 9월 30일에 2025년 회계연도가 끝나게 되는데 공화당은 이 법안이 8월 휴회 기간 전에 최종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.
- 이 법안은 트럼프의 많은 공약을 담고 있는데 소득세율 및 세율 구간(브래킷) 인하 조치를 영구화하고 팁과 오버타임 소득세 일시 면제를 담고 있으며, 연방 부채 상한선을 4조 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있다.
- 세금 확대위원회(The Joint Committee on Taxation)는 현재 하원 법안의 비용은 향후 10년간 3조 7천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, Tax Foundation은 장기적으로 기껏해야 GDP의 0.6% 성장 효과만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.
- 연방 예산 책임위원회(CRFB)는 이법 하원 법안으로 이자를 포함해 부채가 기존 부채에서 3조 3천억 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.
- 이들 정책들이 전면 시행되는 2027년에 CRFB는 늘어나는 부채가 6천억 불, 즉 GDP의 1.8%가 되어 재정 적자가 GDP의 6.9%로 올리게 된다.
- 이 법안에서 예상 지출 삭감은 주로 메디케이드 지원금에서 1조 5천억 달러가 되는데 메디케이드 삭감으로 향후 10년간 9천억 달러 이상이 절약된다. 그러나 메디케이드 혜택자가 오는 2034년에 적어도 8백60만 명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.
- 현재 주 및 지방세(SALT) 공제와 지출 삭감으로 갈등이 이 공화당 주도 법안에 문제가 되고 있다.
- JP 모건은 올해 말에 10년물 국채 금리는 4.35%로 그리고 명목 금리로 10년물 국채 장기 중심선(long-term central baseline) 금리를 4.5% 이상으로 설정하고 있다.

JP 모건 보고서

[물류]

Bloomberg: LA Port Shipments Fell 30% in Early May After Trump Tariffs

5월 초 LA 항만 컨테이너 입항은 30% 감소

- 트럼프의 관세 조치로 LA 항만에 들어오는 컨테이너가 5월 초에는 30% 감소했다.
- 이에 따라 항만 근로자, 트럭 운전자, 창고 근로자들이 업무가 줄어들었다.
-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이 크게 줄어들었다.
- 관세가 시행되기 전에 4월의 경우 이 항만은 20피트 컨테이너 84만 3천 개를 처리해 작년 동월에 비해 9.4%나 수입 물량이 늘었다.
- 그리고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로 미 농산물과 제조 상품의 미국 수입이 줄어들었다.

Bloomberg 기사

[무역전쟁]**Bloomberg: Japan's Kato Plans Bessent Meet to Discuss Topics Including FX****일본 재무성 장관, “미 재무장관과 관세와 환율 논의 예정”**

- G-7 회의가 이번 주에 캐나다에서 열린다. 이와 관련 일본 재무성의 Katsunobu Kato 장관은 이 기간에 미 재무장관을 만나 환율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. 이 소식에 엔화가 상승했다.
- 그는 이번 회담에서 환율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슈가 논의 될 것이라고 말했다.
- 그는 이번 회담은 1) 환율은 시장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고 2) 지나친 변동성은 역효과를 낸다는 양국의 당초 합의를 바탕으로 열리게 된다고 덧붙였다.
- 한편, 달러는 재무성 장관의 언급 후에 달러당 144.73엔으로 상승했다.

Bloomberg 기사

YahooFinance: China iPhone exports to US plunge to 14-year low amid tariff tensions**무역 긴장으로 중국산 아이폰 대미 수출 14년 만에 최저**

- 4월에 중국에서 생산돼 미국에 수출하는 아이폰과 모바일 기기가 2021년 이래 최저치로 하락했다. 이는 양 측의 관세 부과 이후 교역에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상황이다.
- 구체적으로 지난 4월에 중국의 대미 수출 스마트폰의 경우 72% 감소해 수출이 7억 불 미만에 그쳤으며 이는 중국의 대미 수출 감소 폭 21%를 크게 넘는 감소치다.

YahooFinance 기사

[주택]**CNBC: Mortgage rates cross back over 7% after U.S. credit downgrade**
주택 모기지 금리가 7% 상회했다

- 30년 미 모기지 주택 금리가 7%를 넘어 지난 4월 11일 최고치를 경신했다. 무디스가 미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후에 모기지율이 상승했다.
- 모기지 뉴스데일리에 따르면 30년 주택 모기 평균 수치가 어제 월요일 7.04%를 기록했다. 이는 4월 11일 이래 최고치 기록이다.
- 한편, 4월에 계약을 체결한 기존 주택 판매 숫자는 작년 4월과 비교해 3.2% 감소했다고 Realtor.com은 발표했다.

CNBC 기사

[비즈니스와 기업 동향]**WSJ: Home Depot Plans to Keep Prices Steady Despite Tariffs**
홈디포, “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 없어”

- Home Depot은 관세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유지할 계획이다. Home Depot 최고재무책임자 Richard McPhail은 이를 위해 공급업체들과 협력 중에 있다고 밝혔다.
- 공급업체들은 월마트, Home Depot 등 소매업체들이 공급 가격을 인하하거나 생산 시설을 중국 밖으로 이전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.
- 이러한 발표는 지난주 트럼프가 월마트의 관세로 인한 가격 인상 계획을 비난한 이후에 발생했다.

WSJ 기사

CNBC: D-Wave Quantum shares soar 20% as company releases latest computing system**D-Wave Quantum, 새로운 양자 컴퓨팅 시스템 출시**

- D-Wave Quantum이 최신 양자 컴퓨팅 시스템 Advantage 2를 시장에 출시했다.
- D-Wave는 이 컴퓨터가 자사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접속 가능하며, 에너지 효율성을 40% 향상 시키고 소음을 75%로 감소시켰다고 밝혔다. 또한 20방향 연결 기능을 갖춘 시스템을 사용해 더 적은 큐비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한다.
- 한편, 양자 컴퓨팅 출시 발표 후 D-Wave의 주식은 18% 급등했다.

CNBC 기사

TechCrunch: Apple approves Spotify update so US users can buy audiobooks within the app**애플, 오디오북 관련 Spotify 앱 업데이트 승인**

- Spotify는 애플이 자사의 새로운 앱 업데이트를 승인했다고 밝혔다. 업데이트로 인해 미국 내 아이폰 사용자들은 앱 내에서 개별 오디오북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.
- 이전에는 애플의 엄격한 앱 내 구매 규정으로 인해 Spotify 웹을 통해 오디오북을 구매해야했다. 이 업데이트로 앱 내에서 오디오북 가격을 확인하고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.
- 한편, 이는 최근 미국 법원이 애플이 앱스토어 외부에서 이루어진 구매에 대해 수수료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.

TechCrunch 기사

[보고서]**트럼프 압박에도...연준 인사들, '9월 전 금리인하'에 신중론
뉴욕 연은 총재 "국채시장 문제없어"**

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과 국가신용등급 강등에 따른 우려 속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(Fed·연준) 인사들이 9월 이전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신중론을 펴고 있다.

19일(현지시간) 블룸버그,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존 윌리엄스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(연은) 총재는 이날 모기지은행협회(MBA) 컨퍼런스에서 "6월이나 7월에 (미국 경제에)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"고 말했다.

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경제 불확실성이 걷히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, 데이터 수집과 경제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.

...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

KOCHAM | 460 Park Ave. Suite 410 | New York, NY 10022 US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